



노미래

많이 배우들 못했어도 공장에서는
어깨에 힘 좀 주고 일했지



많이 배우들 못했어도 공장에서는 어깨에 힘 좀 주고 일했지

생애 개요

노미례님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함평에서 태어났다. 세상 물정 모르던 초등학교 일학년 때 광복을 맞이했고 “도시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아버지 손을 잡고 인천으로 이사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다복하게 지내던 인천 생활은 6·25 전쟁으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고 끝났다. 열네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전쟁을 피해 고향으로 험난한 피란길을 나섰다.

고향에서 일가친척에 의탁하며 지내다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광주로 올라왔다. 같이 올라온 친구들과 함께 여러 번 도전한 끝에 방직공장에 입사하였다. 홀어머니와 어린 세 동생을 건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일에만 매진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공장에서 취미도 낭만도 챙길 겨를도 없이 뛰었다. 그 덕분에, 순식간에 조장이 되었다.

그러나 스물다섯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다. 면회하러 왔다가 혼기도 놓치고 일만 하는 딸을 보고 쓸쓸히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에 결혼을 결심하였다.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방직공장에서 일했고 급여는 모두 친정으로 보냈다. ‘동생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일을 계속하겠다’는 결혼 조건 덕분인지 시댁에서는 탐탁해하지 않았으나 방해하지는 않았다. 공장을 다니며 두 아이를 낳았고, 퇴직한 후 다시 임시직으로 공장에 다니면서 셋째를 낳았다. 막내 넷째만 일에서 벗어나 출산하였다. 넉넉지 못한 형편이라 자녀 넷 모두 대학까지 가르치지 못했다. ‘그때 빛을 내서라도 공부를 더 시킬 것을…….’ 하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슴 한편에 그득하다.

학교 대신 산업현장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삶의 지혜를 배웠고, 몸으로 경험하고 터득한 인생 공부와 마음공부가 참 스승이었다. 젊은 시절 고생스러웠던 방직공장 생활이 슬프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오히려 삶의 터전이자 가족을 먹여 살린 젖줄이었던 방직공장 추억은 훈장이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 아는 게 없다”는 나직한 말에는 치열했던 어린 여성 노동자의 삶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가족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녹아있다.

여든다섯인 지금은 새벽 운동을 나가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젊은 시절보다 훨씬 활기차고 건강한 마음으로 생활한다.

선머슴처럼 달랑거린다고 지청구 들던 아이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는 우리 노씨 일가가 모여 사는 집성촌인데 나는 그곳에서 일제시대 1938년 2월 2일 태어났제. 어릴 적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호적에 올린 이름이 따로 있다고 허는데, 다들 나를 경희라고 불렀제.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나 밑으로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이렇게 3남 2녀 다복헌 가정이었제. 궁계, 전쟁이 나기 전에 말여, 그때꺼정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았어.

해방 전 고향에서 살 때는 농사도 짓고 그랬으께 살만했지. 나 어려서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은 아주 엄격한 분이었어. 우리 친정아버지는 그야말로 양반이셨지. 나는 남들처럼 아버지 앞에 함부로 걸어 댕기도 못해 보고, ‘아빠’하고 어리광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컸어. 그랑께 아버지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그 품에 한 번도 안겨 본 역사도 없구만. 우리 어머니도 매한가지였어. 항상 조심만하고 어머니 앞에서 깔깔대고 웃고 요래보들 못하고 컸으께. 남들처럼 ‘엄니’ 요로케도 못 부르게 하셨당께, 버릇없어진다고. 우리 어릴 때는 양반 그런 것을 엄청 따지고 살았을 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귀에 못이 백히게 허신 말씀이 “너는 선머슴애마냥 바지만 걸치고 달랑거리고 댕긴다”고 늘 지청구⁴⁵를 하셨지. 그랑께 우리 어머니는 생전에 나 듣고 배우라고, 당신 부모님을 집에서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하시지만, 밖에서 말씀허실 적에는 ‘우리 안어르신, 밖어르신’ 이렇코롬 말씀허셨당께.

음식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자주 말씀해도 나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남아처럼 밖으로만 나돌고 들판 개만이로(개처럼) 뛰어 다녔으께. 그랑께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통 안 맞았제. 내가 워낙 건덕구리라 그 시대를 심든(힘든) 줄도 모르고 억척으로 살았으께. 근디 내가 ‘만약 선머슴처럼 그리 안 험터라면 우리 가족은 또 어찌 되었을까’ 허는 생각이 들기도 허. 지금 생각허도 내 나이 열서너 살에 홀어머니와 동생 셋을 책임지는 일은 버거운 일이었제. 근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도 모르고 해냈지. 지금 생각해 봐도 여간 힘든 일이 아난디. 그때는 내 식구들 입에 풀칠허는 것이 우선이었당께.

일본인 담임선생 이름과 구구단만 기억나고

나는 학교를 제대로 다 못 댕겼제. 함평서 여덟 살에 국민학교 입학하고, 학교까지 십리 길을 산길로 언덕길로 막 올라 댕겼던 것이 생각나. 왜정 때는 촌에서 집 뒤에다 굴도 파고 그랬잖어, 왜놈들 잡으러 오면 숨는다고. 그래 우리 집도 굴 파고 그랬는디 해방이 되고 인천으로 바로 이사를 갔지. 당시 우리 아버지가 서울로 인천으로 댕김서 사업을 허셨는디, 그때 세상 물정을 쫓까 안께 도시로 간 것이여. “자식은 도시에서 갈쳐야 된다” 해가꼬. 해방되고 곧 바로 인천으로 이사를 갔제.

함평서 국민학교 일학년 댕기다가 해방되고, 인자 거그로 갔는디, 인천 가서 언능 전학이 안 되더라고. 지금 댕기로 전화로 전학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여. 한참을 지나서야 전학이 되었지. 그레갓고 내가 인천서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이 기억나는 것은 우리 담임선생 이름하고 구구단 외운 거야. 그때 우리 담임선생 이름이 유나이스야, 선생 이름이. 그란디 고것을 어찌 그리 잊어볼도 앓고 머릿속에 야무지게 기억허나면, 그때 교실서 공부를 허고 있는디 머리 옥에서(위에서) 사람 소리가 나. “유나이스 선생 교무실로 오라” 그렁코롬 말혀, 깜짝 놀랐지. 그때는 ‘오메, 저것이 뭇이당가’ 했제. 지금 말로 치면 고것이 스피커야 스피커. 그 당시 스피커가 뭇인지도 모르는 강촌에서 올라온 촌놈이라 고것을 어찌 알겼어? 하하하. 그때는 저것이 ‘우리 선생 이름을 어찌코롬 안가’, 참말로 요상했지. 그랬는디 세상에 또 우리 선생이 조선사람이 아니었어. 조선사람 같았으면 일본말을 갈쳤을 것인디, 우리 선생은 일본 사람이라 당신이 조선말을 배울라고 우리말을 많이 썼제. 그래 우리가 좀 수월했어. 글고 또 구구단도 어찌 배웠나면 여선생이 수월허게 갈친다고 이이는 사, 삼삼은 구, 사사 십육, 오오 이십오, 요렇게 갈쳤지. 그래서 지금도 당신들처럼 절절로 나눠서 외우지는 못혀. 그렁게는 안 배웠으께. 그래 지금도 배운 대로만 알어.

6·25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인천으로 데꼬 갈 때는 살기가 관찮았제. 그때 인천다가 일본 집을 사 났어. 우리집 있는 데가 소방소도 있고 공설운동장도 있었으께. 집도 지금만이로 이렇게

45 아랫 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

변기 화장실은 아니라도, 안에 그런 것도 있고, 목욕탕도 불로 때는 거 있고, 이게 일본식 집이라 문은 전부 유리창이라 좋았지. 전에는 물도 귀했잖아. 근디 우리집에는 우물도 있었어. 이렇게 타래박으로 떠서 먹었지. 하여튼 전쟁 나기 전에는 곤란하들 안 했제. 당시 인천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장사를 하셨는지 그때 연탄 그런 것도 없이 장작불 때는 시절 아닌가. 평장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장작은 장작을 토막 낸 것이고 다발 장작은 자잘한 놈 다발로 묶어놓은 것이라 그것을 해서 팔았어.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스 맞다, 가스회사를 했다고 봐야지. 그때 인천에서 학교 다닐 때 나무로 만든 계다를 신고 다녔어. 그것을 다른 말로 나막개라고 했는디,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리 불렀제. 계다는 일본말이고 그것이 지금 같으면 쓰레빠야 쓰레빠. 그것도 우리집은 살만 헌께 나막개를 신었제. 가난한 집은 그런 거 있도 없어. 그거를 신고 눈 올 때 걸어가면 그 뗏이나 그것이 막 굽 사이로 올라와. 하하하. 그래도 엄청 좋았지.

근디 인천서 얼마 못 살고 6·25가 딱 터져버렸어. 그것이 어떻게 났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때 밤손님이 먼저 왔었던 거 같았어. 당시 우리 큰집 언니가 초등학교 선생이었어. 큰덕 언니가 우리집서 직장 댕겼는디, 폭격 나기 전에 우리 언니랑 그 핵교 선생들이 잽혀 가서 저녁에 두들겨 맞고 오고 그랬다고 했어. 그란디 우리는 뗏을 모른게 어째서 잡혀갔냐고 물어봤던가 봐. 공께 이렇고 이렇고 해서 잽혀 갔다고. 자세히는 몰라. 인자 우리가 어린 게 그렇게 말을 둘러댔던가 봐. 그렇구만 알고 왜 난리가 났는지 몰랐어. 나중에는 막 폭격이 나고 그랬어도 여름에는 그런대로 전뎠는디, 전쟁이 더 심해져서 우리가 피란 간다고 개나리 보따리 짚어지고 집을 나서고 그랬어. 그때 우리 작은방 아저씨가 리어카로 우리를 데꼬 안 갔으면 우리는 거가 있다 다 죽었을지도 몰라. 작은방 사는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는 고향 가서 못 올라오시고 우리 어머니는 짧은 각시가 어린 아그들 허고 있음께 자기네들만 피난 갈 수도 없잖아. 그래 자기네 리아카에다 우리 가족도 싣고 그렇게 피란이라고 가는디 십리도 못 갔지.

그렇게 집을 비워놓고 피란 갔다 돌아왔더니만 인민군들이 우리집을 차지하고 우편국을 만들어 놓고 썼더라고. 거기다 총알도 엄청 숨겨두고, 즈그덜 먹을라고 김치 갖다 났지, 쌀 갖다 났지, 집에다 먹을 것을 겁나 쟁여 났어. 그 덕에 당분간 우리 식구는 먹고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당께. 근디 일본식 집이라 유리창이 다 폭격을 맞았으니 어찌했겠어, 유리창이 다 깨져 불고, 왕창 뼈들만 남았더라고. 그 시절에는 숨이불 있잖아, 그 숨이불로 다 이렇고 문을 쳐났더라고. 그래 놓고 굴속만으로 가려 놓고, 거그서 인민군들이 숨어서 지내고 있었나 벼.

거그 인천에서도 몇 해 못 살고 6·25가 터지는 바람에 피란 댕기다 고향으로 내려왔제.

내가 죽으면 우리집을 맡아 줄 사람도 없고

당시는 나라에서 곳간들을 다 열어 났어. 인천 선창가에 그 창고들, 쌀 창고다, 뭐 나락 창고다, 거기 가서 다 곡식을 가져가는데, 우리 집은 못 가져왔어. 왜 그랬냐면 남에 집은 다 어른 남자들이 있지만 우리집은 내가 켈로 큰 어른이야. 고작 내 밑에 동생이 겨우 열 살 먹은 남동생이 남자여. 그러니 내가 어쩔겠어. 그때는 쌀푸대를 가마니라고 했어. 그것을 이리저리 십자로 묶어놓은 겹보리를 어깨에 끼고 집에 떠메고 갔지. 나락은 무거워서 못 지고 가니까 겹보리, 그것을 요리조리 묶어진 사이로 팔을 끼워 넣고 그걸 짚어지고 집으로 갔네. 근디 고놈이 이렇게 야잡게⁴⁶ 있으면 어깨에 못 끼울 것인디 많이 쟁여 있음께 내 키높이랑 맞아, 그래서 팔을 이리저리 가마니 속에다 끼워 넣고 어깨에 끼워 메고 집으로 갔제.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용케도 살았다 싶어. 사람이 더러는 악으로 산다고 허는디, 그때 내가 그랬지. 열서너 살 계집아가 고놈을 메고 집까지 갔으니 오죽 용을 썼을까. 그 당시 우리 어머니는 안방마님이었어. 왜 그랬냐면, 지금 가가 일흔세 살 먹었는가 그려, 하여튼 그 막내 동생이 나보다 열두 살 연하인 디, 당시 고놈이 갓난아기였어. 고 애기 낳고 어머니는 밖에도 못 나오시니 내가 그리 동동거리고 나섰던 거지.

그때 피란 댕김서 본 것이 생각나. 지금 코로나 있잖아요? 요것맹키로 전쟁 났을 당시도 지금처럼 무서운 장질부사(장티푸스)가 와갖고 사람을 싹 쓸어 갔어. 당시 내가 장질부사를 앓았는데, 근디 우리 어머니가 막내 동생 보고 “너는 죽으면 내다 버리겠는디, 느그 언니는 내가 못 버리겠다. 니가 대신 가져라” 그랴. 그게 뭘 말이나면, 내가 죽으면 우리집을 맡아 줄 사람도 없고 집안을 이끌고 갈 사람이 없으니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여. 그러서 자식을 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막내 동생은 죽으면 잊어불고 가겠는디, 나가 죽으면, 끌고라도 가야 식구들이 살 수 있으니, 제발 죽지 말라는 것이었제. 참 무작헌 세월 살았다. 그치? 우리 어머니가 당시 난리통에 남편도 큰아들도 다 잃어불고 얼마나 살 길이 폭폭했으면 이런 말쑤를

46 낮게. 나즈막하게

허셨겠어. 지금도 생각하면 참 기가 맥힌다, 그 세월이.

피란 땡길 때 본 것은 길 양쪽에 송장들이 쪽 늘어져 있어. 그란디를 피란 가니라고 그 사이를 걸어 땡겼응께. 무시무시했제, 그때 또 피난 가는데 소래다리라는 데가 있었어. 소래다리를 건너가는데 인자 피란민들 건너라고 판때기를 놔뒀더라고. 철로는 강물에 풍덩 빠져볼고. 금께 얼마나 다리가 사시나무 떨 듯 부들거렸지만, 일단 살아야 허니까 뭐 무서운 것도 잊어붙고 걸어갔는다. 그래도 그 소래다리가 가끔 생각이 나. 그래 내가 가끔 인천 가면 소래다리, 소래다리하면 우리 큰조카가 “천안 거그 어디가 긴갑데요” 그래. 그러서 내가 “오메나, 그 소래다리 한번 보면 쓰겼다, 피난감서 거그가 얼마나 머시했다고” 했어. 근디, 아 막상 가보니 쪼잔해, 그래 내가 “오메 이거 진짜 소래다리 아닌갑다. 굉장히 멀고 높았는다” 그랑께, 우리 조카가 “작은 엄니가 그때는 피란 보따리 짊어지고 땡긴 얘기라서 크고 멀게 느꼈지” 그러드라고.

책가방 대신 인생짐을 걸머지고

결국 인천에서도 오래 살든 못했어. 얼마 못 가서 6·25가 더 심해지는 바람에 여기저기 피란을 땡기다 결국은 고향 함평으로 오게 되었당께. 그 난리통에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학교를 끝까지 못 땡기게 되었어. 난리통이라 전학은 무슨, 아버지, 오빠 다 돌아가셨으니 내가 학교 땡기고 그럴 처지가 못 되었지. 목구녕 풀칠허기 힘든 시절에 전학 그런 것이 대순가. 금께 내가 학교 땡긴 것이라곤 고향서 초등학교 입학허고 땡긴 것 쪼끔 허고 인천 전학 가서 땡긴 몇 년밖에 없어. 겨우 까막눈 신세만 면했던 거지. 학교는 그게 끝이야. 내 평생 글공부는 초등학교 땡기다 만 고것이 전부여. 나도 참 복 쪼가리가 잔상에도 없고, 세상 고생이란 것은 원 없이 해봤당께. 전쟁 통에 전학을 못 허고 학교를 못 땡긴 탓인지 나는 학교도 공부도 안 좋아혀. 그래 초등학교 졸업은 못 땡지만, 피란 땡김서 책가방매니로 인생짐을 걸머지고 땡긴 것이 내가 한 공부랑께, 인생 공부.

아버지가 난리통에 고향에 가셨다가 거그서 돌아가셔부리고 오빠도 인민군한테 잡혀가볼고 우리가 고향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남편도 아들도 잃어붙고 오죽했으면 어린 자식들 앞세워 남편도 없는 고향을 찾았을까. 그래도 일가친척 모여 사는 고향밖에

더 있겠어. 그래 함평으로 내려온 것이지. 당시는 함평 노씨다 허면 고향에서 자작일촌 허고 사는, 다 알아주는 집안이었응께. 우리를 ‘나 몰라라’ 안 허겠지 허는 맘으로 고향엘 간 거여. 고향으로 들어가 본께 참말로 막막했지. 그때는 너나없이 다 어려웠는다 유독 우리 집이 더욱 힘들었던 것은 우리 집에는 일을 책임지고 헤쳐나갈 가장이 없었다는 것이여. 그래 고향에 가서도 뭘 일도 못허고, 이집 저집 일가친척에 부쳐 먹고 살았어. 다행히도 거가 노씨들 집성촌이라 아무리 어렵고 곤란허도 자기들만 밥 먹고 우리들 나 몰라라 그라들 안 허니께, 그 당시 인심이. 그래 고향이 좋은 거 아니겠소. 우리 집안사람들이라 겨우 붙어 살았는다, 내가 그 어린 몸예 네 살 터울 동생을 데꼬 땡김시롱 남들 배급받아 가고 남은 것을 쓸어 담아가지고 가서 먹고, 전쟁통을 그렇게 살아냈어. 지금도 돌아보면 징헌 세월 살았지. 하여튼 나는 6·25때부터 먹고사는 데 이력이 났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항시 허시는 말씀이 “저 아는 아무 데나 놔뒀도 먹고사는 데는 일 없을 것이다” 그랬제. 그리 살다가 여그 방직공장예를 들어가게 되었어.

때락 큰 가시나 서이 방직공장 입사하다

방직공장에서 사람 뽑는다는 소식은 동네 사람들이 알려졌지. 우리 집이 먹고 살기 힘들니까 밥벌이하라고 알려준 거지. 공장서 인물고사, 뭐 그런 거로 사람 뽑는다고. 그때 혼자는 자신이 없었는다, 내 조카뻘되는 얘기 하나 허고 그 얘기 친구허고, 이래 서이 광주로 왔어. 광주가 어딘지도 모르는 가시나들이 도망을 와갖고 갈 디가 없응께, 광주에 멀리 집안 언니가 지산동서 살었는다, 그 언니 집을 찾아간 것이여. 그 가난한 시절에 때락 큰 가시나들 서이 달라붙었으니 가라는 소리도 못 허고 그 언니가 얼마나 애먹었겠어. 그란디, 방직공장예를 하루 이틀에 얼른 들어 가냐 허면 그것도 아니여. 날마다 뽑기는 헌디 시험 보면 자꾸 떨어져. 그러면 그 이튿날 또 가고 그랬지.

근디, 우리 서이 약속을 헌 것이 뭐냐면 ‘서이 중에 두 사람 되고 한 사람만 떨어져도 들어가지 말기’로, 같이 들어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갖고는 지산동서 질(길)도 잘 모르고 그랑께 철로, 그 철로만 타고 날마다 방직공장 앞까지 땡겼어. 그전에는 철로가 있었거든. 없는 시절에 녀의 식구 서이나 밥 멕이고 재울라니, 그 언니가 오직 힘들었겠어? 그것도 다

큰 가시내들을. 그래도 눈치 없이 그러고 땡긴디, 아이고, 나만 시험에 딱 붙고 돌이는 떨어져 부렸네. 그란디 돌이는 여그 광주가 집이고 집도 괜찮게 살고 나만 생활이 어렵고 그랑께, 그 뭐시냐, 약속을 했더라도 나는 공장에 들어갔어야지. 그란디 서이 약속한 것이 있어놔서 나도 공장에 못 들어갔고, 날마다 같이 입사 시험을 치러 다녔제. 우리가 좀 철이 들었더라면 나는 땡겼어야 된다고, 안 그랴.



방직공장 단팍과 함께
우측 종이 가방을 들고 있는 이가노미레

그때는 방직공장 문 앞에서 공장 땡기는 아가씨들 보면, ‘아이고 느그덜은 뭘 복이다냐’ 그랬당께. 그렇게 부럽고 예쁘게 보이고 그러더라고. 근디 마침 같이 간 친구의 친구 언니가 점심시간에 나와갖고 우리 친구를 딱 본 것이여. 그래 “느그가 어찌 이려고 있냐?” 물어 본께,

“입사를 허로 왔는디 안 되었다” 했제. 공개 그 언니 허는 말이 “여그는 방직공장 땡긴 사람이고, 안 땡긴 사람이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른다. 몰래 들어가 기숙사에서 밥 묵고 그래도 된다”고 말을 해줬어. 그래 아는 사람 없으면 못 들어갔을 것인디, 언니가 말해 준거라 우리가 몰래 기숙사에 들어가서 밥도 묵고 그랬지. 그래 나는 진즉 합격 했으께 그대로 출근을 허게 되고, 돌이는 날마다 머시 해서 결국에 서이 다 공장에 들어가긴 했제.

세 즐짜리 완장 찬 조장이 되다

전에는 방직공장에 삼천 종업원이라 했거든. 삼천 명이 된가 안 된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있었으께.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나는 방직공장 정방이라는 디서 일했제. 내가 다닌 곳이 원래는 전남방직인디 그것이 몇 년 있다가 일신방직하고 전남방직으로 갈라졌어. 분가해서도 나는 전남방직에서 일했지. 방직공장에는 직포과하고 방직과가 있는디, 직포과라는 디는 (곳은) 베 짜는 디고, 방직과는 베 짜는 것 준비하는 디여. 말하자면 솜 타서 실 뺀 디까지 방직과 정방에서 허는 일이라고 봐야지.

그때는 하루 여덟시간씩 삼교대를 했는디, 사람이 부족하고 허면 한동안은 이교대를 많이 했제. 열두 시간씩 꼬박 서서 일허면 걸어 감시릉도 자울고(졸고). 그때는 잠자는 것이 제일로 크게 아쉬웠지. 이교대를 자주 하고 나서 쉴 때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허고 기숙사에 와서 쉬고 해주는 밥 먹고. 허는 일은 되얏지만 맘은 편했어. 공장서 밥 주고 재워 주고 돈 주고 그러니.

그때는 공장 식당에서 밥을 어찌 줬냐 허면, 두부 많이 주고 콩나물 많이 주고, 또 저 화요일 날은 팔밥, 금요일 날은 콩밥, 그런께 나는 피란 땡김서 고생을 많이 해갖고, 팔밥 콩밥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잘 먹었지마는, 우리 그 조카되는 애기는 입이 짧아서 팔밥 주네, 콩밥 주네, 입맛에 안 맞네, 하고 투정이여. 반찬도 그 단무지, 옛날에는 단무지를 다팍이라고 했제. 다팍 그런 거 주고 헌께, 밥을 못 먹겠다고 해서 결국 그때 같이 들어갔던 조카와 친구는 얼마 못 땡기고 그냥 나가 부렸어. 고생을 안 허봐서 오래 못 견뎠지. 근디 나는 오래 땡겼지. 결혼해갖고도 둘째까지 낳고 퇴직하고, 셋째 임신해서 나왔다가 다시 임시직으로 들어 갔으께. 다들 나를 부러워했어. 그때는 한 달 월급이 오륙만 원 했던가 그랴. 월급이 첨에 들어가

서는 만 얼맨가 그랬을 것이여. 그래도 인자 조장급 허고 그래갖고 오류만 원 그렇게 타고 그랬지.

근데 거기서 기계를 여러 개 놓고 일헌디, 어쨌든 그 선생님이 날 잘 봐줬던가 그래서 반장이 됐어. 조금씩 계급이 올라갔어. 그때 급수로 해서 뭐 삼급까지 올라갔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난중에는 내가 조장까지 했제. 공장에서 내가 조장까지 올라 갔는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일본 말을 많이 썼지. 일본 사람들이 운행했던 디라 처음에 들어가면 니아마끼라고 해서 청소하는 사람, 그다음에는 이제 다이모지라고 기계 보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다막에라고 기계가 다 차면 빼는 사람, 도비쪼는 뭐냐 하면 기계 차면 내려서 빼고 또 채우는 사람, 그다음에 조장이 있고. 조장만 우리말이여. 공께 나는 그 공장 계급도 일본말로 밖에는 몰라.

그때 공장서 기계가 양쪽으로 짝 있는 디를 세 줄짜리 완장 탁 차고, 내가 조장인께, 거그서는 가우 잡고 살았지. 우리 정방이라는 데는 기계가 막 돌아가니까 신호를 할 때 이 휘각⁴⁷ 소리 갖고는 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그때 내가 조장인께 휘가락⁴⁸을 획불었어, 완장 찬 조장이 휘가락 획 불면, 그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같이 일허고, 또 휘가락을 휘엑 불면 오라는 소리, 획획! 불면 야! 하고 부르는 소리, 그리고 휘익 그리 불면 뭐시 하라는 소리, 휘에엑 그러면 빨리빨리 허라는 소리. (웃음) 그때는 휘가락으로 말을 하듯이 그리 신호를 했어. 아무튼 그때 내가 많이 배우들 못했어도 공장에서는 어깨에 힘 좀 주고 일했지.

공장 다니는 게 자랑이었던 공장 가시내

당시 친척들이나 주변에서 특히 우리 집안에서 나를 굉장히 좋게 봐줬지. 어린 나이에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 더욱 그랬어. 그러니 나도 그때는 아무래도 생색을 좀 내고 그랬제. 내가 전남방직에서 일할 때는 광목을 줘는디, 한 달에 광목을 제일로 적게 받았을 때가 다섯 마였어. 급수가 올라간 게 여덟 마 주다가 열 마씩 줘어. 전에는 천이 오직 비싸고 귀할 때 아닌감. 고깃을 동네 사람들 나눠 주고 그랬으께, 나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그래 나는

47 호각. 호루라기

48 입술을 오므려 불기도 하고, 입에 손가락을 넣어 불기도 하는 휘파람 소리

방직공장 댕긴 것이 자랑이었어, 자랑. (거실 쇼파 천을 가리키며) 이게 다 그때 받은 광목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이불 홀청을 전부 광목으로 허고 살어.

헌디 당시 우리 보고 더러는 ‘공장 가시내’라고 했어. 공장서 일한다고 ‘공순이’라고도 불렀고. 그러도 나는 그런 말 괜찮았구만. 남의 것 도둑질헌 것도 아니고, 지 노력으로 일해서 가족 건사했는디 그리 불려도 무슨 상관이여. 지만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되지. 안 그래? 헌디 당시 전대생들이 공장 아가씨들을 꼬신다는 그런 말도 있었제. 철딱서니 없는 아그들은 더러 월급 타서 그 학생 다 대주고 그런 사람도 있었으께. 아, 나도 언제가 한번 남학생이 접근해왔었지. 물리학과 다닌다고 그란디, 나는 원래 성격이 또 뭐시 헌디다가, 그런디 정신 팔 상황이 아니잖아. 딱 짤라 부렀더니 다시는 연락이 안 와. 그때 그 학생들헌테 넘어가 즈그 신세 조진 애기들도 있고, 시집 잘 간 애기들도 있고 그랬지. 다 지난 이야기지만 철없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으께.

공장서 나는 특별한 취미 같은 것도 없었구만. 그때 공장서 한문이랑 한글도 같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양장허는 것도 배운 사람 있었지. 그런 거 취미 생활로 한다고 많이 배우고 그랬는디 나는 일단 내 가족 먹여 살려야 했으께, 판디 신경 안 쓰고 그저 공장서 일허고 돈 버는 것 밖에는 모르고 살았다고 봐야지. 일 공부만 배웠어. 다른 사람들은 다 뭐시 했지만 나는 오로지 일만 허고 살았어. 그래도 내가 인덕(人德)은 있었든가 당시 직포과에서 한 사람, 방직과에서 한 사람 뽑아 상을 주었는디, 아,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상을 타기도 했어. 그때 일년에 한 번씩 공장서 상을 주는데, 빛이나면 은수제, 그 귀한 은수제 한 벌을 상으로 줬다니까. (웃음)

나는 공장서 열두 시간 일허도 그것이 부당하고 힘들다 그런 거 못 느꼈는디. 공장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는 뭐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 사람이 부족할 때는 이교대로 일했어도 막 제품은 많이 팔리지 사람은 부족허제 기계가 스물네 시간 돌아가야 된께, 열두 시간씩 일해도 그런 거 불평을 안 했어. 그때도 공장서 그런 일로 데모도 허고 그랬는디, 나는 그런디 참석허도 안 했제. 노동자 권리 그런 거는 내가 뭘 잘 몰라. 그것도 뭔가를 알아야 데모도 하고 참석을 하지.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뭘 아는 사람들이 말도 허고 따지제. 나맹기로 글공부도 많이 안 허고 일만 허는 사람은 그런 거는 잘 모르지. 일만 허고 다달이 월급 받으면 그것이 장땡으로 알았지. 근디 그때 데모한 사람 잡을라고 너도 나도 달라들어 (노조)회장이 책상 밑으로 숨고 그랬다는 소문도 있었어. 내가 거그 가임을 안 허고, 내 눈으로 직접 보들 안 했으께.

어머니의 뒷모습에 결혼을 결심하다

당시 우리 어머니는 내가 방직공장 댕김시로 나이도 많이 묵고 결혼을 안 한다니까 힘들었지. 근디 나는 내 동생, 내 가족 먹이는 것이 우선이라 결혼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제. 허나 우리 어머니는 시집 안 간 딸이 벌여 준 돈으로 먹고살자니 오죽이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 그런께 나를 여울라고(결혼시키려고) 애를 썼는디, 내가 “동생들이 돈 벌어서 생활할 때까지는 결혼 못 한다”고 못을 박았으니, 남들 이목도 있고 또 시집도 안 간 딸 앞길 생각하니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 한번은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 돌아갈 때, 오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든지, 내가 우리 어머니 축 처진 그 뒷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다니까.

당시 우리 식구들을 내가 결혼해 버리면 안 되는 형편이었어. 동생이 돈을 벌어야 가정을 이끌고 나갈 것인디 동생들은 아직은 어리고, 우리 어머니는 안방마님이라 아무것도 모르시니 내가 시집 가불면 우리 식구들 어찌겠어. 내 밑에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있는디, 둘째 남동생은 우리집에서 같이 못 살고 큰집 가서 부처 살고 있을 때여. 말하자면 양자를 보낸 것이지, 우리집 형편이 곤란헌께. 그때는 피란민 배급도 타고 했지만 그래도 어려웠어. 옷도 구호물자 옷 타서 입고. 그렇게 요즘 내가 헌옷 버리면서 ‘이것도 가난한 나라에 가서 예전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옷을 타서 입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잔해.

내가 시집 못 가고 있을 때 한번은 대구에서 직원 모집을 하러 왔어. 그때 내가 되모시⁴⁹를 생각했다니까. 내가 대구에 가서 결혼했다고 머리를 올리고 다니다가, 전남방직에 다시 내려와서 결혼 안 했다고 머리를 풀고 취직하면 어떨까, 그런 잔피도 생각했다니까. 우리 가정이 오죽 힘들면 그런 생각도 해봤을까. 그때는 워낙 사람들이 귀한 때라 그것도 가능했지만 거짓말을 못 헌께 그리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스물다섯 먹어서 결혼했제.

그래 내가 맞선을 봤는디 그가 누구냐면, 나랑 같이 일하는 친구 고모네 사돈네여. 우리집 양반이 그 사돈 되는디, 그 때는 거의가 다 결혼을 일찍 헌디 우리집 양반도 나이 들도록 결혼을 못 했어. 그런께 그 양반도 연분을 못 찾았고 그러니 연결이 돼서 선을 봤제. 그때 내가 시댁에다 결혼 조건이 “나는 동생이 돈 벌어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친정에 돈 벌여줘야 된다”고, “결혼해도 내가 벌어서 친정 식구들 맥여 살려야 된께, 그래서 결혼을 허고도 공장에

를 댕겨야 된다”고 했으니 시댁에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 시댁은 괜찮게 살았거든. 그런 조건으로 시집을 갔어. 그런께 시댁에서도 별말을 못허제. 신랑도 그만두라고 재촉도 안 허고. 그러니까 결혼 해갖고도 둘째 낳도록 방직공장을 댕기니 나를 마음에 안 들어했제. 내가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 피란민 가시내에다가 친정에 양친이 다 계신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도 친정 식구들 맥여 살려야 하고……. 이렇게 내놓을 것도 볼 것도 없는디 자기 아들하고 결혼 시킬라니, 내가 시어머니 마음에 들었겠어? 마음에 든 것이 하나도 없었것제. 그런디 요상하게도 신랑이랑 나랑 인연이었든가 내가 신랑 마음에 들어갖고 결혼허게 됐당께. 처음에 시어머니가 와서 선을 봤는디, 그때 내 몸매가 날씬했던가 봐. 그런께 시어머니가 “가시내 허리나 아니나 뭐시 해갖고 아기도 못 낳겠다” 그러케 말헌께, 신랑 하는 소리가 “그래도 허리, 다리, 팔뚝은 다 통통합디다” 그랬대. 내가 팔다리가 좀 포동포동헌 편이거든. 그래 남편허고 인연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아들만 넷을 낳았어.



부부사진
1988년 4월로 기억된다.

49 결혼한 적이 있지만 처녀 행세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순 우리말.



젊은 시절 제주도 한라산에 오른 노미례
1986년 5월로 추정. 남편의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한 여행이었다.

법으로만 살았던 결혼생활

결혼은 남편이 서른 살, 내가 스물다섯에 했제. 근디 그 양반 돌아가신 지 벌써 이십 년째 야. 생존해 계시면 올해 아흔인께. 일흔 살에 돌아가셨네. 한 사십 년 같이 살았구만. 첫애를 스물여섯에 낳았는데, 남편이 좋고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걱정 덜어드리려고 한 결혼이라, 남편한테 다정하니 대할 줄도 어양부릴 줄도 몰랐어. 나는 결혼생활을 법으로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 어째 이렇게 생각허냐면, 그런게 오직 결혼도 넘(남) 눈이 무서워서, 어머니 뒷모습이 안쓰러워 결혼한 것이지,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헌 그런 것이 아니잖아. 여자가 나이 들면 결혼이란 것을 해야 되니까 그래 결혼을 헌 것이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 사시는 것 보고 존대할 줄도 알고, 나 생전 서방님한테 반말도 한 번 안 해보고, 좋아한다고 그런 말도 해보들 못허고, 일평생 들어 보들 못했으께. 요즘 사람들처럼 사랑한다고 그런 말 못하고 살았으께. 결혼이란 것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순리로 알고 살다가, 내 나이 예순다섯

에 영감님 가시고 자식들 다 장성해서 집 떠나고, 지금은 빈껍데기로 이리 혼자 살고 있제.

그 양반 생전에 페인트 대리점을 했구만. 그때는 제비표 페인트라고 제비표가 명품이라고 해갖고 인기가 있었제. 근디 가게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 소리도 못허, 부끄러워서. 그런게 이웃에서 내가 “작은 마누라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나 허고 우리집 양반허고 다섯 살 차이 나는데, 그 양반은 늙어 보이고 나는 젊어 보이께, 작은마누라가 돈 떨어지면 돈 받으로 나왔다고 했다는디, 다음에 나허고 친해진께 그런 말을 해 주더라고. 그런 남편이 페인트 대리점을 예순 살이 넘도록 하다 그만뒀지, 아마. 그때는 내가 남편이 돈을 벌어줘도 돈 욕심을 부릴 줄도 모르고, 생전에 남편이 돈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랬지. 부부지만 다정허니 그리 못 살았어. 남들처럼 남편보고 돈 주라 소리 헐줄도 모르고 속일 줄도 모르고 순종만하고 살았지. 그 양반도 생전 돈 주고 그것 어따가 썼냐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냥 법으로만 살았던 결혼생활이라. 근디 애들은 넷이나 낳았구만. (웃음)

방직공장이 키운 내 아이들

아들만 넷인데, 방직공장에 다니면서 아이 셋을 낳았어. 셋째는 우리 집에서 낳았제. 둘째까지 시어머니가 산후 수발을 들어줬고 셋째부터는 우리 집에서 친정어머니가 해주셨지. 우리 아그덜 셋째까정 방직공장 댁김서 낳고 키웠으께, 방직공장 덕분에 아그들을 키운 셈이제.

근디 지금 내가 후회하는 것은 아이들은 대학까장은 못 갈쳤다는 것이여. 그때 내 주장이 새끼들 안 굶기는 것이 젤로 컷으께. 내가 피란 댁김서 워낙 배를 많이 굶아서 안 굶기는 것을 아주 장땡으로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는 먹고사는 것이 최고 아닌감. 그러서 결국 아그덜 공부를 많이 못 시켰지만. 또 그때는 내가 ‘자식들 대학을 꼭 보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못했제. ‘고등학교꺼장 보내주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어. 근디 우리 막둥이가 대학교를 간다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부렸어. 그리고 대학교를 다시 간다고 이러이러 한다고 헌디 나는 “못해야, 느그 알아서 힘닿아서 가면 모르고 내 힘은 더는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넷째도 고등학교만 나오게 뒀어. 그때도 억지로 갈칠라고 했으면 갈쳤을 것인데, 머릿속에 글 담아 뒀으면 남이 못 뺏어갈 것인데, 지금은 후회된다니까. 이제 생각허면 그거 제일로 미안하고 그랴. ‘그때 빛이라도 내서 갈쳐뒀으면, 머릿속에 글 넣어뒀으면 새끼들 편히 살 것인데’

히는 생각이 들어. 지금 큰아들은 건축회사에 댕기고 막둥이는 서울 회계사무실에 댕기는데, 그때 내가 많이 가르쳤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을 것이여. 지금 사람들은 어쨌든 지 새끼들 갈칠라고 그러잖아. 그리 못했으니 후회가 많이 돼야. 이제 이런 생각해도 아무 소용도 없지만 말이여.

그리고 보면 내가 아그덜한테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아. 먹고살라고 공장 댕김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맛있는 것 못 멕여주니 내가 집에서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줬어. 그때는 밀가루가 대포대로 나왔어. 대포대 밀가루 한 포대 사 놓으면 부자 안 부러웠지. 밀가루 고놈 사다가 내가 빵 만들고, 도나스 같은 것 만들어서 먹였지. 맛있는 거 좋은 거 못 멕여준 것, 그것도 후회되고 그라.



친구의 딸 결혼식에서 첫째·둘째 아들과 함께 왼쪽이 첫째아들이다.

근디 우리 동생들은 내가 고생해서 다 키워 눈께 지금 다들 잘 살아. 그라 조카들도 잘 되어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래서 동생들이 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그라. 요즘도

우리 동생들은 나를 “우리 누나, 우리 누나, 세상에 둘도 없는 누나”라고 험시롱 동생댕들도 자주 전화하고 뭘 보내주고 그라 짜. 근디 우리 아그덜만 나 때문에 못 먹고 못 배우고 그랬 응께 내가 항상 애기들한테 “내가 잘못된 것이 많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엄마 그런 말 씀 마세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혀. “건강하게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큰 복 받은 것이고, 공부 그것 안 해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애기들이 날 이렇게 위로해 줘. 우리 아그덜 참 효자들이지, 세상에 둘도 없는.

배추속 비우듯 마음을 비워야 산다

우리 큰아들이 사고로 일찍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가슴 찢어지게 아팠어. 안 겪어본 사람은 그 속 모르지. 그걸 요새 말로 허자면, ‘너 늙어 봤냐?’ 이런 말 있지요? 이 말은 늙어 봐야 노인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자식 앞세운 일을 당한 사람 외에는 그 아픔을 몰라. 말로 표현이 되겠어? 누가 상처가 나서 많이 아파라고 하면, 아프겠다는 말은 하지만, 아파 본 사람만이 얼마나 아픈지 알듯이. 말로는 아프겠다고 하지만 그 깊은(깊은) 속을 어찌 알아. 내가 아들 잃고 가슴이 아픈디 어찌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가슴이 맨날맨날 칼로 찢어대는 것 같았어. 그라 미친 사람 마냥 돌아댕겼어. 우리 집 양반도 점잖해갖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둘이 그냥 마주 보고 허구헌 날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그래도 부부가 가슴이 아프면 서로 다독겨려줘야 헐디, 그것도 안 돼.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말을 못하고. 나는 나대로 심(힘) 들고. 그래도 시간이 절로 넘어간게, 그런게 ‘산 사람은 산다’ 그런가 벼. 근디 그 쓰라린 가슴을 낮게 해준 것이 뭐이냐면, 겨울 운동장에 찬 서리 맞고 서 있는 배추야, 배추.

그러니까 이전에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느디 내가 구령을 해줬어. 방직공장에서 휘가락 붙었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선생님, 선생님 했거든. 그랬느디 우리 아그가 그래분 뒤로는 거기 안 나갔어. 아니, 못 나갔제. 그러니까 그때 석달을 그랬느디 이제 백일 넘고, 그러니까 거그서 같이 운동한 사람들이 “그래도 나와서 같이 걷고, 운동도 하고 그라야 잊혀지는 것”이라고 나오라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못 이긴 듯 나갔느디, 지금은 전남대학

교 여기가 다 이렇게 건물들이 짝 찻는다, 그때는 빈터로 많이 있었거든. 땅이 빈터로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다 배추도 심고 뭐도 심고 했는데, 겨울 지나고 봄 되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데 배추가 속 찬 놨은 자기네들이 다 해가고, 조금 아까운 놨은 딱 묶어놓고, 속이 안 찬 놨은 그냥 내버려뒀어. 봄이 되니 속 찬 놨은 묶여져 있다가 폭 썩어서 내려부리고, 속 안 찬 놨은 다시 새파라니 이렇게 살아 있더라고. 그것을 보고 '바로 저거다, 내가 마음을 배추속 비우듯 싹 비워버려야 그래야 내가 산다. 내가 죽어볼면 나는 괜찮을 것인데, 남은 식구들을 어쩔 것이냐, 내 가슴 아픈 것이 저렇게 배추속처럼 마음을 싹 비워버리고 속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한 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자' 이리 마음 먹었지. 물론 그때만 해도 나를 위해 발버둥쳤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을라고. 그렇지만 그때 마음은 '남은 자식들을 생각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란디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배추가 아픈 내 마음을 깨우쳐 주는구나'였제. 안 겪어본 사람이 이 마음을 알까. 그 배추 포기 속 비우고 겨울철 난 것을 본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모르지. 그래도 시간이 저절로 간게 살았소. 마음이 아파도 시간이 절로 넘어간게 살아지대요. 지금 한 삼십 년이 됐는가, 그놈이 간 지.

우리도 학교맹키로 동창생이다

방직공장에 다녔던 사람들, 처녀 때 공장에서 뭐 했던 사람들 모임을 했는디, 그것이 이십일 계모임이었어. '우리도 학교맹키로 동창생이다' 그래가지고 방직공장 퇴직자들이 모임을 만든 것이었어. 거그 거실에 있는 거울이 그 거울이야. 결혼해갖고 살면서 처음에는 거그 맹키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퇴직하고 나와 가지고 집에서 애기들 키우면서 모임을 만들었어. 친목계라 하지 않고 '동창 모임'이라고 했어.

처음에는 계원이 한 스무 명 되었구만. 야구선수 어머니도 우리 계모임이었고. 지금은 이사 간 사람, 저승 간 사람, 뭐 어찌고 해가지고 다 떨어져볼고 몇 사람 안 남았어. 다들 아프고 그런게 자주 모이지도 못하고. 그 계원들이랑 모여서 서로 오갈 때가 한 이삼년 된 거 같어. 갯돈으로 한 달에 만 원씩 부었어. 그 돈으로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고 톱툰이 여행 다니고 그랬지. 처음 시작할 때는 가정집에서 모임을 했는디, 그걸 유사라고 해. 서로 만나면 "니가 유사다", "내가 유사다" 해갖고 돌아가면서 모이고 했는디, 그때가 참 좋았지, 지금은 나이 들

고 그래서 그것도 힘든게 나중에는 식당에서 모임을 했어. 여행을 간 곳도 많았어. 그러니까 여행도 여그 모임에서만 간 것이 아니라 여그저그서 갔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 뭐 가기는 많이 갔는디 잘 모르겠어요. 진주 벚꽃놀이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그랬는디..... 내가 계책을 갖고 있었어. 갯돈이 모이면 어떻게 하나면, 모은 돈으로 놀러도 댕기는디 쓰고 자식들 여울 때 뭘 일 있을 때 그런 거 다 갯돈으로 주거든. 무슨 행사 있으면 그 돈으로 부조하고,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하고 그랬는디, 한 이삼년 전에 갯돈도 싹 나눠줘부렸어. 우리 먹고 남은 놨이라고. "우리 나이 먹고 자식들 다 여우살이 해 버린게 돈이 필요가 없다" 해서 나뉘지. 그 많던 이십일 계모임이 요근래, 금께 지금은 서이 남았는디 그 중 내가 제일 건강허지. 한 사람은 또 살겠네 죽겠네 허제, 몸이 안 좋아. 그래 근래에는 자주 만나지도 못했어. 여름에는 더워서 여름 끝나고 모이자 허고, 겨울에는 겨울이다 해서 못 모이고, 따뜻해지면 모이자 했는디 또 요새는 코로나 땡시 그도 못 만나고 있어. 남은 사람 몇 안 되니 더 보고 잡지.



방직공장 동료들과의 계모임은 스무 명으로 출발해 이제 세 명만 남았다.
진해 벚꽃놀이. 위줄 오른쪽 두 번째가 노미례



2003년 11월 2일, 국학 기공 모임
첫번째 줄 왼쪽 네번째가 노미례

인생 공부 덕에 노년도 활기차게

생각을 해보면 나랑 우리 가족은 방직공장 덕분에 살았다고 봐야지. 그래 방직공장은 내 인생의 동반자였어, 동반자. 그 시절 가시내가 어디 가서 돈 벌어들 디가 있었간디. 거그서 돈 벌어갓고 친정 가족들 다 부양했고 내 새끼들 키웠응께, 방직공장이야말로 우리 가족 밥줄이 었고, 내 짧은 공부를 대신해 준 스승이었다고 봐. 우리 가족 맥여 살릴 수 있는 공장이 있었 응께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억척같이 살았어. 그래 지금 생각해도 방직공장은 참으로 고맙고 보배로운 곳이야. 그곳이 나를 키운 토양이라고 해야겠지. 그곳 덕에 나랑 우리 가족이 뿌리 내리고 잘살고 있잖아.

당시 공장서 게으름 안 피우고 일한 것이 몸에 배여 나는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해. 늙었다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운동도 나가고 봉사활동하고 다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

받았응께 나도 뭔가는 그 대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진즉에 젊어서 장기기증 그런 것도 다 신청해뒀어. 그것도 지금은 늙어서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말여. 봉사는 뭐 별난 봉사 있겠어? 식당에서 배식 같은 것도 허고 또 복지관이나 어디에서 뭘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랴. 그래서 내가 복지관에 나가면 굉장히 인기가 많아. 선생들이 운동하면 방직공장에서 휘가락 붙었던 경험으로 구령 같은 것도 해주고 그랑께 선생들이 좋아라허지. 몇년 전에는 봉사 많이 했다고 김정숙 여사 초청으로 청와대까장 땡겨 왔어. 광주효령복지타운에 김정숙 여사가 오셔갓고 그때 우리를 초청했어. 초청을 받으면 그 많은 사람을 누구는 데꼬 가고 누구는 안 데꼬 가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 나같은 경우는 상을 많이 탔지. 그래 봉사상을 많이 탄 그 뭉시기로 해가지고 청와대를 갔다 왔어.

코로나 전에는 새벽 운동 나가면 학교 운동장 돌고, 체조 조끔 허고, 금께 저것(거실에 있는 표창장 사진)이 전국 다 돌아 땡긴 증거여. 아, 그런께 우리 나라가 참 좋다고. 어르신들 체육대회라 해갓고 일 년에 한 번씩 대회에 나갔는디, 처음에는 금상, 대상, 요령코 메달을 겁나게 타 왔는디, 진짜 금은 아니라도 메달을 거실에다 짝 걸어놔어. 지금은 다 치워버렸구만.

내가 요즘도 복지관에 나가면 그곳을 천국으로 알아. 거그 가면 따순 점심해서 주지 겨울에 추우면 난방 때주지, 여름에는 더우면 에에컨 틀어주지, 거기 가면 기른 것이(없는 것이) 없네. 또 나만 언닌가 여기서 언니! 저기서 언니! 허면 내가 획 돌아보면 사람들이 다들 나를 좋아라 해.

지금은 나 혼자 산께 복지관에 땡기고, 국가에서 노인들 주는 기초연금 받고, 노인 일자리 나가면 돈 나오고 그걸로 살어. 이것도 내 복이지, 안 그랴? 나는 요즘도 아침이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전남대학교 운동장에 나가. 지금은 코로나 땡시 운동을 못 현께, 단체 운동을 못허게 현께 많이 답답허지만 곧 좋아지겠지?



광주여성구술채록단과 함께 앨범을 들여다보며 웃는 노미례

생애연보

- 1938년(1세) 음력 2월 2일 함평군 함평읍 복촌리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출생
- 1947년(10세) 학다리초등학교 입학
- 1948년(11세)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인천으로 이사
- 1949년(12세) 인천승일초등학교 전학
- 1950년(13세) 6.25 전쟁 중 부친과 오빠 사망. 고향 함평으로 내려와 가장이 됨
- 1956년(19세) 고향에서 친척들 보살핌으로 지내다 광주로 올라와 전남방직 입사
- 1963년(26세) 겨울, 결혼
- 1964년(27세) 첫아들 출생
- 1966년(29세) 둘째 아들 출생
- 1967년(30세) 전남방직 퇴사
- 1968년(31세) 셋째 아들 출생
- 1973년(36세) 넷째 아들 출생
- 1970년대 중반 방직공장 동료들과 계모임 시작
- 1998년(61세) 장남 교통사고로 사망
- 2001년(64세) 남편 폐질환으로 별세
- 2021년(현재) 복지관 봉사활동